

“군민과 함께 결정하고 책임질 것”

진안군의회 동창욱 의장, 진안군수 출마 선언... 5대 중점 분야 10대 특수사업 제시

진안군의회 동창욱(65) 의장은 15일 오전 11시 진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군민의 요구가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관리와 유지에 머물던 행정을 이제 바꾸겠다.”며 진안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현 군정의 한계를 반복되는 사업, 단기성과 중심 행정, 그리고 결정 책임의 부재라고 말했다.

동 의장은 “협정에서는 늘 같은 요구가 반복되는데 행정은 매년 비슷한 계획과 보고로 답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군민의 말은 전달되지만 하지 말까지 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결정에 책임지는 군정과 선택과 결과를 감당하는 행정으로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또 “군수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군민과 함께 결정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다.



진안군의회 동창욱 의장은 15일 오전 11시 진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군민의 요구가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관리와 유지에 머물던 행정을 이제 바꾸겠다.”며 진안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동 의장은 5대 중점 분야, 10대 특수사업’을 제시했다. 소득·산업·생활·정주·미래 전략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고 10대 특수사업은 소득 창출과 생활인구 확대, 미래 산업 유치를 동시에 겨냥한 구조 전환형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방문은 접수 초기 민원인이 집중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운영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군민 불편과 애로사항을 청취해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안=우태민 기자

소상공인 특례 보증·이차보전 나선다

무주군, 최대 3000만원 보증·연 5% 이하 지원

무주군이 오는 19일부터 ‘소상공인 특례 보증·이차보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3,000만원 보증과 연 5%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무주군은 사업추진을 위해 전복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을 출연해 올해 총 2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과 대출 이자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태양광 및 신용보증 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보증기간은 5년이며, 예산소진 시까지 전복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특례 보증을 통해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은 이차보전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는 무주군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면 대출금리 중 연 5%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전복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은 후 신청하면 된다.

무주군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은 NH농협, 전북은행, 무주반딧불신협, 설천신협, 무주안성신협, 무주새마을 금고, 설천새마을금고 등 총 7곳이다.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관련 내용은 무주군청 누리집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은 전복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전북은행 내, 매주 목요일 09:30~12:00)와 무진장지점(진안, 매주 월~금요일)에서 진행한다.

임재영 산업경제과장은 “특례 보증과 이차보전 사업이 무주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경영 회복, 지역 경제 활성화를 주도하는 정책을 발굴·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손흥기 기자

장수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진

장수군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복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군이 보전함으로써 금융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특례보증 지원사업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장수군 소재 소상공인 가운데 신용관리정보 대상이 아닌 사업자 전복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사업장당 보증한도는 최대 3천만 원이며 대출이자율의 최대 4% 이내에서 이차보전이 지원된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또는 거치기간 없이 5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소상공인 특례보증 용자 지원 신청은 장수군청 농업정책과 지역경제팀(063-350-2182)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신청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최훈식 장수군수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착착

최훈식 장수군수, 현장 운영 상황 점검·공무원 격려

장수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신청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최훈식 장수군수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접수 초기 민원인이 집중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운영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군민 불편과 애로사항을 청취해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장수군은 접수 창구 혼잡을 완화하고 원활한 민원 응대를 위해 분청 각 부서 인력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지원하는 등 부서 간 협업체계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일선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군민에게 보다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최 군수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절차와 대기 현황, 접수 동선, 민원 응대 체계 등을 살피며 신청 과정에서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세심하게 확인했다. 또한 접수 초기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인력 배치와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군민 불편 사항이 발생할 경우 행정에서 신속히 대응해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최 군수는 분청 파견 인력과 읍면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훈식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관리하겠다”며 “군민들이 불편 없이 신청하고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부터 집행·사후관리까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특히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군민이 신청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지원을 확대해 누구나 불편 없이 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저소득층 어르신 의치 지원

무주군이 2026년도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의치(틀니·임플란트) 지원에 나선다.

무주군은 15일 무주를 ‘정치과의원’을 시작으로 21일까지 ‘연합치과의원’, ‘서울온정치과의원’, ‘우암치과의원’, ‘안성면 100세 치과의원’과 의치 시술 관련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각 치과의원은 대상자에 대한 시술 전 구강 검사와 치아 발치, 치주질환 치료를 진행하고 의치 시술과 장착, 시술 완료 후 의치 사용법 교육까지 전 과정을 맡게 된다.

무주군에 따르면 2026년도 저소득층 어르신 의치 지원 사업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의료수급자와 차상위위인부담감경 대상자다.

지원 비율은 의료급여 1종·차상위 1종은 5%, 의료급여 2종·차상위 2종은 15%이며, 희귀난치·중증질환자는 5%, 만성질환자는 15%를 지원받는다. ‘완전틀니’는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부분의치’는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과 지대치 비용을 지원한다.

지대치보철은 1약당 최대 50만 원, 1약당 최대 2개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면 된다.

임플란트는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1인당 최대 2대까지 가능하다.

무주=손흥기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청청소년수련관 최우수 수련시설 선정

진안군청청소년수련관이 성평등 가족부 주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청소년수련관 부문에서 ‘최우수 시설’로 선정됐다.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되는 평가로 운영 및 관리, 청소년 이용 및 참여,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등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4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올해는 전국 청소년수련관 203개 중 20개 시설이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진안군청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우수한 운영과 함께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등에서의 유관 기관 협력체계 등을 인정받는 등 다방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더욱 다양한 시설과 쾌적한 환경으로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해 전북도 내에서는 선진적으로 청소년 정책 환경 마련에 앞장선다는 평가를 받았다. /진안=우태민 기자

한국생활개선진안군연합회 연시총회·과제교육 개최

진안군은 1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2026년 한국생활개선진안군연합회 연시총회 및 과제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제17대 생활개선연합회를 새롭게 이끌어갈 각 읍·면 임원 소개를 시작으로, 2026년도 주요 운영 방향과 활동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또한 겨울철 추위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 농업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주제로 한 특별 과제 교육이 병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양회엔 한국생활개선 진안군연합회장은 “회원들이 농촌 여성 리더로서 깊은 자긍심을 갖고,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진안군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민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